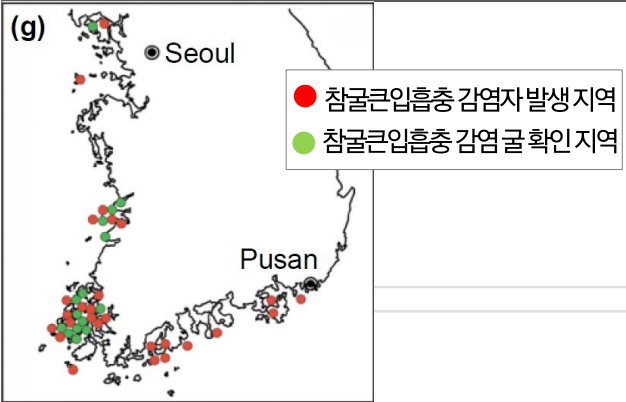


# 생굴 섭취와 감염병

## 생굴 섭취와 참굴큰입흡충 감염

1988년 인체감염이 세계 최초로 보고된 전남 신안군 등의 해안 지방에서는 참굴큰입흡충 (*Gymnophalloides seo*)이라는 기생충 감염의 유병률이 높게 유지되어 왔으며 감염원이 자연산 참굴로 알려졌다

###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국내 참굴큰입흡충 감염 실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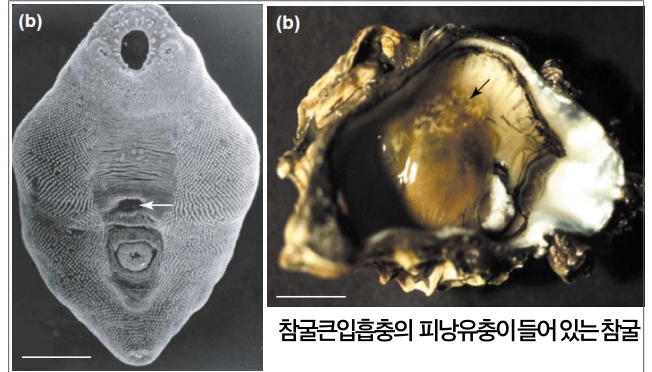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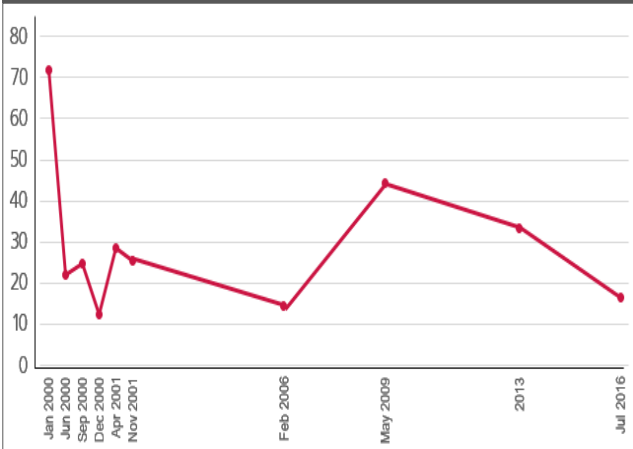
<출처> Chai JY, et al. Trends Parasitology 2003;19:109-112

2006년 하동에서 발견된 17세기의 여성 미이라 속의 대변에서도 이 참굴큰입흡충의 알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하동은 이 기생충의 풍토 지역이 아니지만 수 백 년전에는 발생 지역이었음을 추정

<출처> Seo M, et al. J Parasitol 2008;94:467-72

최근 참굴큰입흡충의 감염 실태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2012년 실시된 제8차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의한 추정 감염자 수는 전체 장내기생충이 약 130만명이었고, 참굴큰입흡충은 10,790명(0.02%)이었음

### 전남 신안군 압해도 신장리 주민의 참굴큰입흡충 감염률 추이 (출처: 대한기생충학회 열대의학회 학술대회 2016)



참굴큰입흡충의 전자현미경 사진

<출처> Choi MH, et al. Korean J Parasitol 1995;33:289-296  
Lee SH, et al. Korean J Parasitol 1995;3:1-7

## 임상 증상

- 위장장애와 소화불량
- 발열
- 식욕부진
- 체중감소
- 쉽게 피곤해짐
- 기력 없음

## 진단

- 대변에서 기생충 알의 확인(전문가 필요)

## 치료

- Praziquantel (10 mg/kg) 1회 복용

## 예방

- 풍토 지역에서 채취한 굴을 생으로 혹은 잘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피함

<참고> Chai JY, et al. Trends Parasitology 2003;19:109-112